

민주, 통합·혁신으로 새 비전 창출

주내 기구 출범 ... 민주 진영 통합 가속 내년 선거 앞두고 인재영입·공천 개혁

민주당이 '통합과 혁신'의 양 날개로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의 공백을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출범시킬 '통합과 혁신위원회(가칭)'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 진영의 통합은 물론, 인재영입과 공천제도 개혁 등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24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진보 진영의 통합을 가속하기 위한 '통합과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이 출범시키는 '통합과 혁신위원회'는 민주세력 통합, 인재개발 및 영입, 당내 시스템 혁신 등 세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된다.

특히, '통합과 혁신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과 공천제도 혁신 등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공천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과감한 전략공천이 이뤄지는 한편 원외의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공천심사위 운영 등을 통해 후보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DJ 서거 이후에도 민주당이 과거의 틀에 얽매어 공천에 나설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천 혁신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은 공천 혁신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존 자치단체장의 인지도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배제하는 공천 시스템 혁신을 통해 능력이 검증되고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DJ 이후 민주당에 남은 과제는 '자수성당'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기득권 포기를 통한 민주진영 통

합과 공천 시스템 혁신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통합과 혁신위원회는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통합과 혁신위원회를 맡을 인물은 원외 인사를 영입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민주세력 통합에는 적합하지만 당내 시스템 혁신 등에는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원순 회계제작소 상임이사 등 정치권

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시민사회 및 재야 진영 명망가를 위원장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 및 재야와의 실질적인 통합을 앞당기고 공천 등 당내 시스템 개혁에 대한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합과 혁신위원회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당내 계파 구도에서 자유롭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가 필요하다"며 "중립적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통합과 혁신위원회는 오히려 각종 논란만 낳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najju.co.kr



24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인부들이 봉분에 흙을 입히고 있다. /연합뉴스

'화합·통합' 앞장 YS 행보 주목

이희호 여사에 위로 전화 동교·상도동계 초청 만찬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장례 이후에도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화합과 통합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두 대통령의 가신 그룹인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DJ의 서거를 과거 민주화 진영과 영·호남 간 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 의지와 맞물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YS는 오는 26일 서울의 한 음식점으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인사들을 초청, 만찬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교동계의 한 핵심 인사는 2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기간 고생을 많이 했다며 우리와 상도동 사람들이 저녁을 사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찬 회동에는 동교동계에서 권도갑·한화강·김옥두·한광옥·이훈평 전 의원과 상도동계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등 80년 대 YS와 DJ의 양대 계파가 함께 구성했던 민주협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

졌다. 동교동계 인사는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 국장 때 상도동계가 고생을 한데 대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YS가 직접 사했다고 해서 일정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YS의 초청 만찬에 따라 26일 한광옥 전 대표가 주최할 예정이었던 두 가신그룹의 회동은 내주로 연기됐다.

YS는 또 24일 오전 DJ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YS는 또 24일 오전 DJ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어사는 김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의 안부를 물으면서 "손 여사님 건강은 어떠십니까"라고 화답했고, 김 전 대통령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YS의 이러한 행보는 DJ 서거 이후 정치권의 화두로 던져진 화해와 통합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관 위에 태극기 놓고 묻었다 환수

"매장 국기법 위반" 안장식 후 다시 꺼내 정일형·이태영 부부 묘소와 30m 거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안장식에서 고인의 관을 덮었던 태극기를 관과 함께 묻었다가 다시 꺼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현충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안장식에서 관을 덮었던 태극기를 고인의 관 위에 올려놓고 하토 의식을 거행한 후 오후 6시40분께 모든 행사를 마쳤으나 오후 8시10분께 태극기를 다시 꺼냈다.

이날 하관식 직전 관을 덮었던 가로 5m, 세로 3m 크기의 태극기를 전달받은 미망인 이희호 여사는 "(태극기도) 고인의 유골이 니 집에 가져가는 것보다 (고인이) 지니고 가 시면 좋겠다"고 말해 유족들이 현충원 관계자에게 전달, 고인의 관 위에 올려놓고 하토 의식이 진행된 것.

이후 유족들은 안장식 행사를 모두 끝내고 차량으로 현충원을 벗어났으나 뒤늦게 태극기를 매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기법' 위반이란 사실을 인지한 행안부 관계자가

유족 측에 알렸다. 2007년 7월 시행된 국기법 제10조는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은 그의 '정치적 후견인'으로 불렸던 고 정일형 박사와 이태영 박사 부부의 묘소와 남동쪽으로 불과 30여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 관심을 모았다.

제2~9대 8선 의원이자 의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일형 박사는 71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당시 신민당 대통령후보였던 김 전 대통령의 선거사무장을 맡아 활약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정일형·이태영 부부의 권유로 지난 62년 평생의 반려자이자 영원한 동지가 된 이희호 여사와 부부의 연을 맺은 만큼, 인간적으로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5선 의원을 지낸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정일형·이태영 부부의 외아들이다. /연합뉴스

민주 지도부, 오늘 하의도서 추도 행사

박지원 "민주대연합 유언"

민주당과 동교동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후에도 추도 및 정신계승 행보를 이어갔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대통령의 직통자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25일 DJ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를 방문, 추도행사를 갖기로 했다. 또 향후 1주일도 추모기간으로 지정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향소도 오는 26일 까지 운영하며 현수막과 근조 리본 등의 추모 시설들도 존치하기로 했다.

DJ 정신 계승을 위한 분위가 잡기도 계속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4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그 어려셨지만 저에게 (지난

달 22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기셔서 한 것이 최후의 말씀"이라며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야4당과 단합하라. 모든 민주시민사회와 연합해서 반드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문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김 전 대통령의 유지에 대해 "철학적으로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 정책적으로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협력의 3대 위기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극복해라. 정치적으로는 모든 민주개혁진영이 통합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잘 받드는 것이 민주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정길 "DJ 가장 위대한 점은 '용서'"



재임시절이 전직 대통령들이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라는 고백이 나왔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자 정치 원로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수차례 청와대로 불러 정치적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 정부 시절 행정부차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던 김정길 전 대한체육회장은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가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라고 회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추도의 글을 통해 "1997년 대선에서 당선된 뒤, 대부분의 사람은 광주 확산의 최종 책임자이자,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당시에 정치적 복수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판사에게도, 자신의 사

본원출신 실제 합격자 중 80%가 여흥방학부터 공무원강좌 수강신청!! www.hanbitgosi.co.kr

중앙선관위 2009. 9. 27시행 행정고시
공무원법 제104.7조 **수석합격자 배출!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7.9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개강 9.1

한빛소방직전문학원

한빛고시학원

공주 북구청앞

231-0234